

3경기 연속 멀티히트... 김규성, 자꾸 눈이 가네



KIA 5번째 흥백전

프로 5년차... 지난해 전역
홈런치며 연일 뜨거운 방망이
내야 백업 요원 '주목'
스프링캠프서 수비력 보완
"절실했던 야구... 매일이 소중"

브룩스 5타자 연속 삼진쇼
직구 최고 구속 150km
슬라이더·체인지업 '눈길'

KIA 타이거즈의 '젊은 피' 김규성이 내야 백업 경쟁에 새바람을 일으킨다. KIA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5번째 흥백전을 치렀다. 흥팀이 1회초 김규성의 2루타를 시작으로 2점을 만들며 리드를 가져왔지만, 경기는 오선우의 투런포를 앞세운 백팀의 8-5 승리로 끝났다. 주전 선수들로 꾸려진 백팀. 이에 맞서는 흥팀에서 김규성이 세 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날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규성은 3차전에서 박찬호의 대수비로 들어간 뒤 8회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날렸고, 9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마무리 문경찬을 상대로 우측 담장까지 넘겼다. '특별 휴가' 뒤 지난 31일 재개된 4차전에서는 흥팀의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와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연달아 안타를

때렸다. 그리고 2일에도 첫 타석에서 임기영을 상대로 2루타를 만들었고, 6회 다시 중전 안타로 세 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수비에서 기대를 받는 선수인 만큼 더 눈길이 가는 김규성의 뜨거운 방망이다. 김규성은 "요즘 컨디션도 좋고 페이스도 좋아서 더 많은 경기하고 싶다"고 웃었다. 캠프에서의 부진이 오히려 약이 됐다. 김규성은 "캠프 때부터 방망이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박)찬호 형, (최)원준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다. 코치님들 조언도 많이 듣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한국 와서 조금씩 좋아진 것 같다"며 "폼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짧게 나와야겠다는 생각하고 연습한 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식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챔피언스필드 담장을 넘긴 건 잊지 못할 기억이 됐다. 김규성은 "기분 좋았다. (홈런을 맞은) 경찬이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 홈런을 치면서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KIA가 야수진의 세대교체 고민을 하는 만큼 김규성의 성장세는 반갑다. 김규성이 '예비역'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선린인터넷고를 졸업하고 2016년 입단한 5년 차 김규성은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난해 7월 제대했다. 군복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야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기대감이 더 크다.

김규성은 "군대에서 진짜 야구가 너무 절실했다. 휴가나와서도 운동하고 야구를 했다"며 "2년 공백이 있어서 타석에서 아예 안 맞고 힘든 부분은 있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오늘 같은 게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수비를 강조하는 윌리엄스 감독 아래, 전역 후 첫 스프링캠프를 치르며 수비에 대한 부족함은 많이 느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시즌 1군에 데뷔하는 게 김규성의 목표다. 김규성은 "개인적으로 수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잡는 동작에서 부족하다. 오늘도 공을 잡고 빼는 동작에서 그런 게 있었다"며 "육성이 있다. 백업을 먼저 목표에 두고 부족한 것 채우면서 1군에서 뛰고 싶다. 또 주자로 나가면 어떻게든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장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흥팀 선발로 나온 브룩스는 5타자 연속 삼진쇼를 펼쳤다. 브룩스는 1회 첫타자 박찬호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뒤 김선민에게 볼넷까지 허용했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베타 처리했다. 2회 3개의 안타를 내주며 2실점은 했지만 3회 1사 1루에서 삼진쇼를 시작했다. 나지완과 유민상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운 브룩스는 4회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며 5타자 연속 삼진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때서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을 선보인 브룩스는 이날 최고 150km까지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핫 플레이어 - 투수 김현수

위력적인 커브...이적 두달만에 적응 끝

KIA 타이거즈의 김현수가 딱 맞는 마운드에서 '젊은 마운드'에 힘을 더한다. 김현수는 지난 1월 안치홍의 FA 보상 선수로 KIA가 낙점한 '유망주'다. 좋은 구위와 빠르면서도 짧은 낙폭의 커브가 위력적인 투수로, 서재용 투수 코치가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후보군에 넣고 지켜보기도 했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새 경기장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색함은 없다. 가장 친한 친구 김기훈이 옆에서 적응을 도왔고, 캠프 때는 투수 최고참이자 에이시인 양현종이 나서 과외 지도를 해주기도 했다. 김현수는 "벌써 (KIA에 온 지) 두 달이 됐는데 두 달이라고 하기에 너무 빨리 지나갔다"며 "캠프에서도 그렇고 합병에서도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시설도 좋고 다들 잘해주고 벌써 다 적응했다"고 언급했다. 처음 서 본 챔피언스필드도 찰떡궁합이다. 김현수는 "마운드가 잘 맞는다. 시선도 괜찮고 좋다.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본격적이다. 와본 적도 없다"며 웃었다.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스피드는 김현수에게 아쉬움이 있다. 지난 시즌 최고 144km를 기록했던 그는 벌써 145km를 넘겼다. 김현수는 "제일 신경 쓰는 게 구속인데 서재용 코치님께서도 그렇고 다 좋아질 수 있다고 해주셨다. 준비를 잘해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벌써 145km를 기록했

다"며 "공을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늘었다. 김현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픈 곳도 없고 지금 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 직구 구사율이 높아졌다는 게 좋아진 부분이다. 자신감이 생겼고 경기에 나가서 긴장하지 않는 것도 좋아졌다"며 "성실하고 꾸준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마운드에서 긴장하지 않고 내 공을 던지는 부분도 좋다. 열심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올라와서 오래 있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도' 전준호 최다도루 550개→549개 정정

KBO, 38시즌 경기 기록 데이터화 완료...이강철 탈삼진 1749→1751로
'대도' 전준호의 KBO 최다도루 기록이 550개에서 549개로 정정됐다. KBO가 1982년부터 2019년까지 38시즌 전 경기의 기록 데이터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1982년부터 1996년까지 기록 검증에 마치고 잘못된 기록도 바로 잡았다. 올해 KBO 연감과 레코드북에는 데이터화 과정에서 바로잡은 기록이 적용됐다. KBO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경기 기록을 데이터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이전까지는 KBO 사무국이 현장에서 작성된 수기 기록지를 팩스로 받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후 일자 별 성적표를 출력해 문서로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2001년부터 온라인 경기 기록이 시작되고 실시간 문자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매 경기 기록이 곧바로 데이터베이스화 됐다. 이후 KBO는 정확한 기록과 통계 정보 제공을 위해 기록위원회 및 스포츠투아이(현재 공식 기록업

체)와 협력해 과거 기록까지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00년부터 역순으로 수기 기록지를 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입력된 데이터는 다시 수기 기록지와 문서로 보관된 성적과 비교 검증한 뒤 오류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검증 과정에서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총 6168 경기에서 1600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개인 기록 순위가 바뀐 경우는 없지만 개인통산 기록 일부가 조정됐다. 2009년 550도루를 달성하고 은퇴한 '도루 1위' 전준호의 기록이 하나 줄었다. 검증 과정에서 롯데 소속이던 1996년 9월 20일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해태와의 경기에서 기록된 도루가 교체 출장한 박종일의 기록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즌 도루는 23개에서 22개로, 통산 도루는 550개에서 549개로 정정됐다. 정민철의 개인통산 완투 기록에도 변화가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육요원' 손흥민 해병 훈련소 입소

20일부터 제주도서 3주간...EPL 일정따라 변경 가능성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손흥민(28·토트넘)이 20일 제주도 해병9여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는 2일 "손흥민이 오는 20일 제주도의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이유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스테번 베르헤벤(네덜란드)의 일시 귀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의 귀국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중단된 상황에서 구단과 협의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됐다. 손흥민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23



세 이하(U-23) 선수만 참가하는 U-23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나이 제한 없이 참가하는 선수)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다. 다만 손흥민의 훈련소 입소 훈련에는 변수가 있다. 만약 EPL 사무국이 4월 30일까지 연기된 프리미어리그를 5월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일정을 미루고 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